



2026년도 정기총회 개최



본회(회장 권영걸)는 지난 5월 14일 세종시 소재 세종연구원(원장 권영걸) 회의실에서 '2026년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및 사단법인 에스아트플랫폼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서 권영걸(69응미) 회장은 인사말에서 특별히 세종시에서 진행된 이번 총회를 기념하며 세종시에 대해 “불과 13년만에 어떻게 이런 거대한 도시를 만들었냐”며 “이렇게 거대 도시를 만들어내는 게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AI 격변의 시대에서 신도시만이 AI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라고 말하며 세종시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민수정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회는 회장 인사말에 이어 이민주(76회화) 상임부회장의 2025년도 사업보고, 김정아

사무차장의 2025년도 회계보고, 김홍규 상임부회장의 2026년도 사업계획보고에 이어 김종선(74회화) · 김소선(63조소) 감사의 감사보고 후 인준, 임원개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2025년도 사업보고에서는 S-미술아카데미 운영, 온라인 사업, 홈페이지 및 아카아브 운영, 경조사, 백제미술여행, 대한민국청소년미술대전 최우수상과 베리타스미술상 시상 등 지난해 진행한 행사 및 사업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다음으로 지난해 SNU한국화대전, S-미술아카데미전, 소확행아트컬렉션, 숨은예술가들 등 총 14개의 전시사업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2026년도 사업계획 보고에서는 총 8개의 전시와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임을 보고했다. 이어 감사보고에서 본회 이종복, 김종선 감사는 “2025년도 사업 및 회계를 감사하여 본 결과 철두철미하게 진행됐고, 실무 및 관리를 최선을 다했음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밝혔으며 (사)에스아트플랫폼 김소선 감사는 “2025년도 감사를 실시한 결과 회계와 업무 집행에 있어서 정관과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공익법인 재지정이라는 성과를 거둔 것을 큰 성과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5년도 사업회계와 2026 사업계획은 만장일치로 인준됐으며 이어진 임원개선에서는 권영걸 현 회장과 이종복, 김소선, 김종선 현 감사가 재추대되었다.



즐거운 총회, 세종시 여행

본회는 '즐거운 총회'를 위해 지난 5월 14일 정기총회를 세종시 여행과 함께 진행했다. 이번 여행은 세종시 세종연구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본회 권영걸(69응미) 회장의 초대로 이루어졌다. 여행에는 61학번부터 24학번까지 63년 터울의 임원 및 회원들이 참가했으며 모교 학생회 손예은(24동양) 회장 등 재학생들도 함께 해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14일 오전 8시 30분 전세버스를 이용해 서울을 출발한 일행은 두시간 남짓 이동해 세종시에 도착, 세종연구원을 방문해 권회장과 원장실에서 담소를 나누었다. 오전 11시부터 회의실에서 총회를 마친 일행은 12시 30분 인근 식당으로 이동했다.



점심식사는 삼대 대통령을 모신 청와대 조리장이 운영하는 '청와삼대'에서 청와칼국수와 낙지만두를 시원한 막걸리와 곁들여 먹었는데, 이종복 감사가 수수부꾸미를 후식으로 제공해 동문 간의 끈끈한 유대감을 높였다.



이후 세종시내 주요 장소를 버스로 투어하며 국립세종수목원으로 이동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대한민국 최초 도심형 국립수목원으로, 온대 중부지역의 식물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우리의 전통정원 문화를 발전시키며 도심 속 녹색문화 체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중앙녹지공간 내 64ha 면적에 조성되었다. 국내 최대 식물전시 유리온실인 사계절온실과 조상들의 정원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한국전통정원, 분재원을 보유하고 있다. 두 명의 수목



원 해설사가 일행을 두 팀으로 나눠서 각 온실의 특징적인 식물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나라 자생 붓꽃을 모티브로 한 사계절전시온실은 지중해전시온실, 열대온실, 특별전시온실 등 3개 온실로 구성됐으며 1000여종의 열대 및 지중해성



식물을 만나볼 수 있었다. 수목원 탐방 후 카페로 이동해 권회장이 제공하는 음료를 마시며 즐거운 대화를 나눈 일행은 오후 5시 다시 전세버스를 이용해 서울로 출발, 무사히 하루일정을 마쳤다. 한편 본회는 국립세종수목원 탐방을 바탕으로 지난 일본 나옴시마여행을 다녀온 회원들의 작품들과 함께 오는 8월 20일부터 9월 1일까지 아트스페이스 쉼리아에서 전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S-미술아카데미 여름학기 모집

본회가 주최하고 (사)에스아트플랫폼이 주관하는 '2026 S-미술아카데미 여름 학기'가 오는 6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12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서울대학교 총동창회가 후원하는 이번 미술실기강좌는 회화와 드로잉, 디지털아트, 전통회화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실기 중심의 전문 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S-미술아카데미는 매 학기 모교 출신 작가와 전문 강사진이 참여해 수준 높은 예술교육을 제공해오고 있다. 특히 단순 취미 교육을 넘어 개인의 표현 역량과 창작 감각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미술 입문자부터 심화 창작을 원하는 수강생까지 폭넓은 관심을 받아왔다. 이번 여름학기 역시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작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실기와 이론, 작품 제작과 발표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수업을 선보인다.

이번 학기에는 ▲기초소묘드로잉: 어반드로잉·인물창작(강사 김호준) ▲자유크로키: 누드(강사없음) ▲프리페인팅-유화·아크릴화 고급과정(강사 조명식) ▲그림에세이-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림, 그 속에 담긴 나의 이야기(강사 한성원) ▲아크릴화-구상에서 추상까지(강사 정일영) ▲현대수묵화: 풍경·인물·정물·문인화창작(강사 조래원) ▲사군자: 여백과 묵향의 힐링(강사 변영혜) ▲태블릿 PC 디지털페인팅-기초부터 작품제작까지(강사 이영훈) ▲수채화 초·중·고급(강사 박혜령) ▲원데이클래스 프레스코·석회벽화 템페라(강사 선우향) 등 총 10



개 강좌가 마련됐다. 특히 이번 여름학기에는 신설 강좌들이 눈길을 끈다. 한성원 강사의 '그림에세이-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림, 그 속에 담긴 나의 이야기'는 그림과 글을 결합해 자신의 감정과 일상을 기록하는 감성 드로잉 수업이다. 한성원 강사는 모교 서양화과

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일러스트레이션전공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수업은 기술적 완성도보다 자신만의 시선과 관찰에 집중하며, 일상의 순간들을 자유롭게 표현하는데 목적을 둔다. 한강사는 "그림은 잘 그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감각과 시선을 발견하는 과정"이라며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다운 나만의 서사를 만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다. 또 다른 신설 강좌인 정일영 강사의 '아크릴화'는 아크릴 회화의 기초부터 창작 작품 완성까지 체계적으로 배우는 12주 프로그램이다. 정일영 강사는 모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서양화전공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아크릴 물감의 특성과 다양한 재료 활용법을

익히며, 기초 색채와 도형 표현, 레이어링과 글레이징, 임파스토와 나이프 페인팅 등 회화 기법을 단계적으로 실습한다. 특히 단색화 기초, 질감 표현, 풍경과 정물 묘사 등 다양한 표현 방식을 경험하며 수강생 개개인의 회화적 감각을 확장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S-미술아카데미의 가장 큰 특징은 수강생 중심의 개별 지도 방식이다. 모든 강좌는 강사의 시연과 설명에 그치지 않고, 수강생의 수준과 성향에 맞춘 1:1 피드백을 병행한다. 또한 실기 수업과 함께 미술사적 이해, 화면 구성, 재료 활용 등 이론 교육을 함께 진행해 보다 깊이 있는 창작 경험을 제공한다. 강좌별 결과물 발표와 리뷰 시간 역시 마련돼 있어 수강생들은 자신의 작품세계를 점검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아울러 디지털 드로잉과 현대수묵화, 프레스코 템페라 등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커리큘럼은 최근 미술교육의 흐름을 반영한다. S-미술아카데미는 단순히 그림을 배우는 공간을 넘어, 각자의 삶과 감각을 예술로 표현하고 서로의 작업을 나누는 창작 공동체를 지향한다. 본회는 이번 여름학기 역시 다양한 세대와 배경의 수강생들이 예술을 통해 새로운 시각과 경험을 얻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강좌안내: 서울대미대동창회 홈페이지: <https://www.snuarta.or.kr/>
수강문의: 02-877-8065(평일10~17시) 문자신청: 010-8605-8065

회장동정

세종연구원 개원기념 학술포럼 및 업무협약 체결



본회 권영걸(69응미) 회장이 원장으로 임기를 수행하고 있는 세종연구원은 지난 5월 7일 세종시립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원기념 학술포럼 'AI 행정 혁신 선도 도시, 세종'을 개최했다. 권회장은 "세종연구원 개원을 기념하는 이번 포럼을 통해 세종시가 AI행정 혁신의 세계적인 표준을 제시하는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행정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연구원은 이번 개원기념 학술포럼을 계기로 세종시가 AI행정 혁신의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AI와 행정, 도시와 산업의 미래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연구원은 지난 15일 세종연구원에서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원장 이홍준)과 세종시 인력양성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인력양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연구 협력체계 구축, 지역 수요 기반 교육과정 공동 설계 및 데이터 공유, 직업훈련교육 공동 개발 및 고도화, 연구 및 인력양성사업 성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선배가 쏜다-커피 브레이크 간식행사



작은 커피 한 잔이 모교 재학생들에게 따뜻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본회가 모교 학생회(회장 손예은)와 지난 4월부터 모교 재학생들을 위해 진행하는 '선배가 쏜다-커피브레이크'가 따뜻한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행사는 모교 동창회사무실에서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에 학생들에게 무료로 커피와 에너지바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15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동창회사무실은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모여 교류하는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학생들은

"동창회에서 제공해주는 커피 덕분에 학교에 올 때마다 반가운 마음이 든다", "잠시 쉬어가며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좋다"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전했다. 단순한 커피 제공을 넘어 재학생과의 유대감을 높이고 학교에 대한 애정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본회는 앞으로도 꾸준히 행사를 이어가 더 많은 학생들이 편하게 방문해 교류할 수 있는 동창회사무실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모교소식



스케치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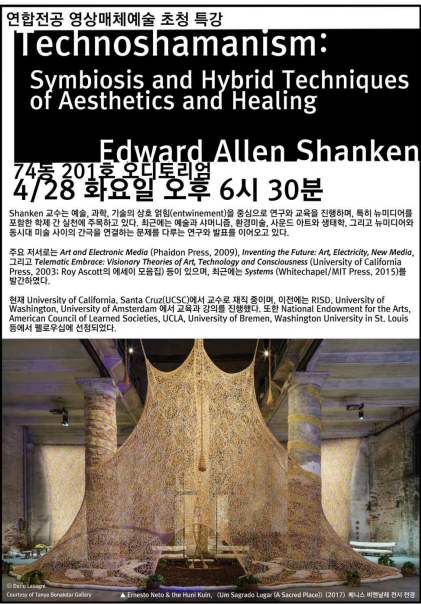
모교(학장 정의철)는 지난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각 과별 스케치여행을 진행했다. 동양화과, 서양화과, 조소과, 디자인과, 공예과는 양일간 스케치여행을 진행하며 현장 기반의 예술 경험을 확장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실을 벗어나 실제 공간 속에서 관찰과 드로잉을 진행함으로써 창작의 시야를 넓히고 학과 구성원 간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양화과는 전주에서 스케치여행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따스한 봄날 속에서 동기, 선후배, 교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학과 측은 “뜻깊은 시간을 함께 만들어 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다음 스케치여행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특히 동양화과는 스케치여행의 성과를 모교 50동에서 전시를 통해 공유하며 많은 관심을 끌었다.



서양화과는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과 민복진미술관, 포천아트밸리 등 다양한 미술관 및 조형공간을 방문했다. 학생들은 전시 작품과 공간 구성을 직접 체험하며 현대미술과 조형예술에 대한 이해를 심화했고, 현장 스케치를 통해 작업적 영감을 얻는 시간을 가졌다. 조소과는 충북 단양으로 스케치여행을 떠났다. 학생들은 소노벨 단양에 머물며 자연 풍경과 지역 공간을 체험하고 학과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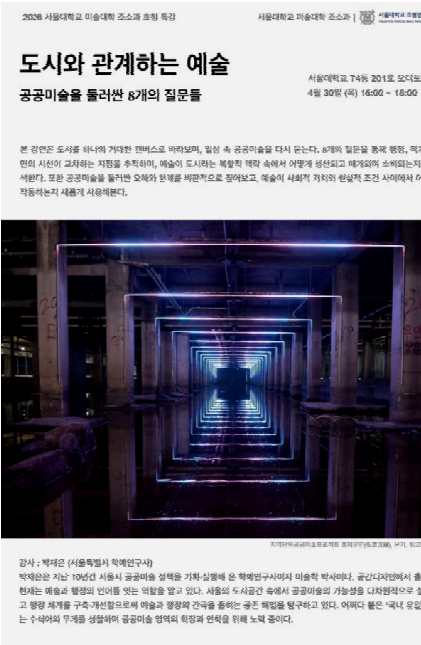


영상매체예술 초청특강

모교 협동과정 영상매체예술전공은 지난 4월 28일 예술복합연구동(74동) 201호 오디토리엄에서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산타크루즈(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Cruz) 미술사학과 Edward Allen Shanken 교수 초청 강연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은 'Technoshamanism: Symbiosis and Hybrid Techniques of Aesthetics and Healing'을 주제로 진행됐다. Shanken 교수는 예술·과학·기술의 상호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와 교육을 이어오고 있는 학자로, 특히 뉴미디어를 포함한 학제 간 예술 실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최근에는 예술과 사머니즘, 환경미술, 사운드 아트와 생태학, 그리고 뉴미디어와 동시대 미술 사이의 연결 가능성을 탐구하는 연구를 지속해오고 있다. 이번 강연에서는 기술과 치유, 미학의 융합 가능성을 중심으로 동시대 예술의 새로운 실천 방식과 생태적 감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강연에는 서울대학교 구성원과 예술·미디어 분야에 관심 있는 청중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조소과 초청특강



모교 조소과는 지난 4월 30일 '도시와 관계하는 예술 - 공공미술을 둘러싼 8개의 질문들'을 주제로 초청특강을 예술복합동(74동) 201호 오디토리엄에서 진행했다. 강연을 맡은 박재은 학예사는 지난 10여년간 서울시 공공미술 정책을 기획·실행해 온 학예연구사이자 미술학 박사로서, 공간디자인을 기반으로 예술과 행정의 언어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는 서울의 도시공간 속에서 공공미술의 가능성을 다각도로 실험하며 관련 행정 체계를 구축·개선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예술과 행정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공

공미술의 지속 가능한 확장과 정착을 위한 공존의 방식을 모색해 왔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강연에서는 도시와 공공미술의 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질문들을 중심으로 공공미술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도시 속 예술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학생회 간식행사



모교 학생회(회장 손예은) '이음'이 1학기 중간고사 기간을 맞아 재학생들을 위한 간식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모교 50동 303호에서 열려, 미술대학 학생회비 납부자를 대상으로 크리스피크림 도넛과 아이스아메리카노 세트를 제공했다. 학생회는 시험기간 학업으로 지친 학우들을 응원하고 구성원 간의 소통과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사 현장에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방문한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졌으며, 간식을 수령하며 서로 안부를 나누는 등 따뜻한 분위기가 형성됐다. 또한 현장에서는 학생회비 납부도 함께 진행되어, 납부 학생들에게 향후 학생회가 주최하는 간식 행사와 다양한 이벤트 참여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학생회 '이음'은 앞으로도 학우들의 학교생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 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대소식



서울대학교미술관 개관 20주년 기념식

서울대학교 유홍림 총장은 지난 4월 17일 서울대학교미술관에서 '서울대학교 미술관 개관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미술관 건립에 기여한 삼성문화재단과 홍라희(63음미)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서울대학교미술관은 2006년 삼성문화재단과 홍라희 명예관장의 기부로 설립된 국내 최초의 대학미술관으로, 지난 20년 동안 예술과 학문이 어우러지는 교육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서울대학교미술관 설립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의 시간'이 마련되었으며, 서울대학교는 홍라희 명예관장에게 개관 20주년 기념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유홍림 총장은 축사에서 "서울대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다양한 학문이 서로 교차하며 만들어내는 횡단성에 있다"며, "서울대학교미술관은 바로 이러한 연결과 소통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예술의 힘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복합적 위기 속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서울대학교미술관이 예술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질문들을 함께 성찰하는 공론의 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엔비디아 매디슨 황, 'AI 시대의 리더십' 특강

서울대학교는 지난 4월 28일 매디슨 황(Madison Huang) 엔비디아(NVIDIA) 피지컬 AI 플랫폼 제품기술 마케팅 시니어 디렉터를 초청해 특별 강연과 캠퍼스 방문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테크 기업의 리더와 서울대 학생·연구자가 한 자리에 모여 AI와 미래 리더십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방문의 주요 행사는 해동첨단공학관(303동)에서 열린 'AI 시대의 리더십: 여성들의 목소리(Leadership for the Age of AI: Women's Voices)' 강연이었다. 다양한 전공의 학생·연구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황 디렉터는 AI시대의 변화, 여성의 리더십, 커리어 전환 등 친숙한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특히, 테크 산업에서 성공에 이르는 단일 경로는 없으며, 여러 분야에서 찾아오는 기회를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강연 후에는 학생 패널 토론과 질의응답 세션을 통해 참석자들의 활발한 참여가 이어졌다. 특강에 앞서 유홍림 총장과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한 오찬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AI 교육 및 연구의 미래와 서울대-엔비디아 간



협력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매디슨 황 디렉터는 서울대 로보틱스연구소와 AI 연구원 등 주요 연구시설을 방문해 학생 주도 연구 프로젝트와 시연을 참관했다. 이번 방문은 로보

틱스와 AI 분야에서 서울대가 보유한 연구 역량과 학생들의 창의적인 기술력을 소개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전문가와 함께 'Build a Claw'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운영되어 학생들이 AI 에이전트 개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됐다.

총장님과 함께하는 리더십 콘서트



지난 4월 30일, 중앙도서관 본관 SNU Commons에서 「총장님과 함께하는 리더십 콘서트: 창업으로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 개최됐다. 행사는 '아이엠비디엑스' 대표이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인 김태유 교수의 강연으로 시작됐다. 해당 강연은 '의사에서 과학자로, 그리고 글로벌 시장 상장기업 대표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주제로, 국내 유일 액체생검기술 기반 플랫폼을 창업하기까지의 과정과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이후에는 유홍림 총장, 김태유 교수, 강건욱 창업지원단장이 함께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와 창업에 대한 대담을 나눴다. 대담 말미에는 학생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학생들은 창업 과정에서 대학 교육의 역할과 지원 제도, 서울대학교 학생으로서 창업에 도전할 때 가져야 할 자세 등에 대해 질문하며 유익한 답변이 오갔다.

SNU 커먼스 조성 사업



서울대학교 'SNU 커먼스 조성 사업'은 유홍림 총장의 핵심 공약으로 시작됐다. '커먼스(Commons)'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사이에 존재하는 '공유 영역'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동의 자원이자 그 정신까지 내포한다. 이러한 공간에서는 서로 다른 배경과 생각을 가진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마주치고 교류하며, 토론과 협업을 통해 배움을 확장할 수 있다. 이러한 커먼스의 개념을 대학 교육에 적용한 'SNU 커먼스'는 서울대 교육 혁신을 위한 통합 공간으로, 캠퍼스의 중앙을 학생 교류 공간으로 조성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융복합 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공용·유휴 공간을 학생들이 자율적,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심점으로 플랫폼화하여 구성원들의 '자발적 실천'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SNU 커먼스는 행정관(60동)을 중심으로 문화관(73동)과 학생회관(63동)을 잇는 가로축, 중앙도서관(62동)과 잔디광장을 잇는 세로축의 구조로 구성된다. 각 공간은 고유한 역할을 가지면서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문화관은 문화와 예술 활동의 거점으로, 학생회관은 소통의 공간으로, 중앙도서관은 배움의 중심으로 기능한다. 행정관은 이들을 잇는 중심이며 넓게 펼쳐진 잔디광장은 열린 교류의 공간으로서 자리한다. 공간의 전환으로 자연스러운 머무름이 생겨나고, 이를 통해 창의적인 사고와 열린 배움의 기회가 만들어진다. 향후 각 단과대학의 공용 공간에도 SNU 커먼스의 배움·교류·문화·소통 기능이 확산할 수 있도록, 단과대학 연계형 커먼스 거점 조성을 위한 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총동창회소식



총동창회 정기총회

서울대학교총동창회(회장 김종섭)가 지난 3월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정기총회에는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500여 명의 동문들이 모여 오랜 만에 만나 인사를 나누며 담소를 이어갔다. 재학생들도 행사에 참석해 선배 동문들과 대화를 나누며 교류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다. 정복을 갖춰 입은 학군단 후보생들이 동창회기를 들고 입장하며 행사의 막이 올랐다. 이날 행사에서 김종섭(66사회사업) 회장은 퇴임 인사를 통해 “지난 4년 동안 동문 여러분의 성원 속에 총동창회를 이끌 수 있어 큰 영광이었다”며 동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저는 직함을 내려놓지만 동창회의 발전과 사회의 활력을 위해 힘이 닿는 데까지 돕겠다”고 말했다. 제28회 관악대상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관악대상은 모교 발전과 국가 사회에 기여한 동문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올해는 조기호(54화학교육) 기호물산 회장, 서병륜(69농공) 로지스올그룹 회장, 이수만(71농공) A2O엔터테인먼트 키 프로듀서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조기호 수상자는 후학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온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서병륜 수상자는 물류 산업 발전과 동문 경제인 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수만 수상자는 K-pop 산업을 세계 무대로 확장시키며 한국 문화의 위상을 높인 공로로 수상했다.



31대 이준식 회장 취임

총동창회는 지난 3월 27일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이준식(72기계)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제31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회장은 2026년 4월 1일부로 2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동문 사회의 가치와 역할을 강조하며 ‘세대를 잇는 동창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회장은 취임 인사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을 인준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45만 명에 이르는 서울대 동문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 가치를 가늠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소중한 토대 위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계승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세대를 이어가는 동창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총동창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단순한 친목 단체를 넘어 대학 발전과 사회 공익을 잇는 지성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창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젊은 동문들의 참여 확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각 지역과 분야별로 청년 중심 지부를 단계적으로 설치해 젊은 동문들이 보다 쉽게 참여하고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토문화기행

지난 4월 2일 제12회 국토문화기행에 참여한 동문 60여 명이 강릉 일대를 찾아, 전통 한옥이 남아 있는 고택과 조선시대 학자의 삶이 깃든 공간, 그리고 동해의 풍경을 둘러봤다. 성봉주(84체육교육) 대장이 이끈 이날 기행에는 김은순 지역 문화유산 해설사가 동행해 각 장소의 역사와 건축,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동문들은 해설을 들으며 이야기를 따라가기도 하고, 고택 마당과 정원을 천천히 걸으며 공간의 분위기를 함께 나눴다. 울곡의 집 오죽헌에서 300년 고택 선교장까지 둘러보고 경포해수욕장까지 둘러보며 강릉의 역사와 자연이 한 흐름으로 연결됐다. 다음 기행은 9월 경북 칠곡 일대 탐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임무현 대주전자재료 회장 장학금 10억원 약정

지난 3월 총동창회 장학 기부금은 총 2억 3566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달에는 공과대학 출신 동문들의 굵직한 기부가 잇따르며 장학 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달 최고액 기부자는 대주전자재료 회장인 임무현(61화학공학) 동문이다. 임동문은 10억원을 5년에 걸쳐 매년 2억원씩 출연하는 장기 약정을 체결하고, 이달 첫 번째 2억원을 쾌척했다. 임동문은 모교 화학공학과 졸업 후 1965년 모교 상학과에 편입해 1967년 졸업했다. 1981년 무역회사 대주교역을 세운 뒤 1985년 대주정밀화학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전자재료 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으며, 2003년 대주전자재료로 변경했다. 그는 실리콘 음극재 등 전자산업 원재료의 국산화를 주도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개교80주년기념 모교발전을 위한 나눔골프대회

- 일 시 : 6월 9일(화) 티오프 오후 1시
- 장 소 : 블루원 용인CC
- 참 가 비 : 50만원

6월 조찬포럼

- 일 시 : 6월 11일(목) 오전 7시 30분
- 장 소 : 플라자호텔L층 그랜드볼룸
- 강 연 자 : 미정
- 참 가 비 : 5만원 (조찬 및 도서 제공)

6월 등산트래킹

- 일 시 : 6월 18일(목) 오전 10시
- 장 소 : 인왕산 *집합 장소 추후 공지
- 참 가 비 : 2만원 (오찬 제공)

회비납부 안내

회비구분			회비
연회비	회원		5만원
	임원	회장	100만원
		부회장	30만원
		이사	10만원
평생회비			50만원(만65세 이상 30만원)

납부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 회비납부시 성명·학번·학과를 명시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총동창회비는 별개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회비입금내역(2026.4.16.-5.15)

- 부회장회비 변영혜(78회화) 서명덕(71응미) 이기조(81응미) 이부연(71응미) 이정연(71회화) 이진민(83서양) 조운영(74회화) 채혜선(82응미)
- 이 사 회비 류지선(89서양) 박혜령(74회화) 배창숙(74응미) 안규철(73조소) 이애자(73응미) 장준혁(90조소) 전민숙(74조소) 채현교(90서양)
- 일 반 회비 빈지영(17서양) 최재영(87동양)
- 광고후원금 이선원(75회화) 정혜주(83서양) 각 20만원

축하기·근조기 배송안내

회원 및 회원가족의 경조사시 축하기나 근조기를 보내드립니다. 축하기와 근조기는 모든 회원께 무상 제공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은 동창회 재원부족으로 당사자가 본인인 경우 외에는 연회비 납부 회원께 배송비(지정업체 위탁)를 받고 보내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전화: 02-555-1946

소식을 보내주세요~

본회 소식지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는 매월 15일 발행되어 동문 및 관련

단체 등 4000여명에게 메일을 통해 전달되며, 휴대폰이나 본회 인스타그램·네이버밴드 등 SNS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010-5235-1946)나 메일(snuarta@naver.com)로 동문들의 전시 및 행사·인사·수상·개업·결혼·부고 등 동정을 보내주시면 소식지에 게재해 드립니다. 또한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동문은 사업체 소개 기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SNS로 직접 소식을 전하세요~

본회는 회원과의 소통을 위하여 네이버밴드·인스타그램 등 SNS계정(명칭/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을 운영, 동창회 소식 및 공지사항, 회원동정 등을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밴드는 직접 소식을 올릴 수 있습니다. ※회원인증을 위해 ID는 실명으로 가입(예:김홍도98동양)

광고후원안내

서울미대동창회 E-NEWS 광고를 통해 기업·단체·개인의 홍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찬해 주시는 광고료는 후원금으로 처리되며 이뉴스 발간 및 본회 사업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 회 지 명 :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
- 발행방식 : 이메일 발송, SNS업로드(인스타그램, 밴드)
- 광고마감 : 매월 말일
- 발 행 일 : 매월 15일
- 판 형 : A3(국배배판) 297x420mm
- 연락처 및 이메일 : 02-555-1946, snuarta@naver.com

규격	광고료		
	1회	6회	12회
1/6면	10만원	50만원	100만원
1/3면	20만원	100만원	200만원
1/2면	30만원	150만원	300만원
전 면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S-미술아카데미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9길16 백악미술관 2층

*문의 02-877-8065

* 평일 10~17시

2026 여름학기 미술실기강좌 시간표 6.8 ~ 8.31

*공휴일 휴강 (보강 진행)

월	화	수	목	금	ONE DAY CLASS	
오전 10:00 - 13:00	기초소묘드로잉 여반드로잉 인물창작 김호준	프리페인팅 유화·아크릴화 고급과정 조명식	그림 에세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림, 그 속에 담긴 나의 이야기 한성원	현대 수묵화 풍경·인물·정물 ·문인화 창작 조래원	태블릿PC 디지털 페인팅 기초부터 작품제작까지 이영훈	7.25(토) 10:00-17:00 프레스코 석회벽화 템페라 선우향
	자유 크로키 누드 강사 없음	아크릴화 구상에서 추상까지 정일영	사군자 여백과 묵향의 힐링 변영혜	수채화 초·중·고급 박혜령		
오후 14:00 - 17:00						

접수 기간
2026.5.1(금)~5.25(월)

접수 방법
접수 | 010-8605-8065 문자
입금 | 301-0252-4434-51농협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수강 정원
강좌별 15명
* 신청순 접수 / 복수신청 가능
* 10명 미만 폐강

수강료
수강료 36만원 (12회)
자유크로키 20만원 (10회)
* 모델료 별도
프레스코 15만원 (1회)
* 재료비 포함
그림에세이 24만원 (8회 7.1~8.19)

강좌/강사/환불 안내 홈페이지 참조
(snuarta.or.kr S-미술아카데미)

주최 서울대학교미술대학동창회 주관 (사)에스아트플랫폼 후원 서울대학교총동창회

동문 인터뷰

장지성(85동양) 전주교육대학교 총장



전주교육대학교 총장 취임 소감

총장 취임 전에 교무처장의 직책을 맡은 적이 있어서 행정업무가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지만, 한 대학의 장이 가지는 무게감과 책임감을 깊게 느끼고 있다.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전주교육대학교의 비전으로 제시한 '작지만 강한 대학, 함께 만드는 미래 교육 혁신 플랫폼'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모교 재학 시절 경험이 현재 교육자이자 행정가로서의 철학에 미친 영향

모교 재학 시절은 사고의 뿌리를 형성한 시간이었다. 창작은 대상과 현상을 다양한 시각으로 관찰하고, 내적인 성찰을 통해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행정 현장에서 그대로 작동한다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마주치는 여러 문제를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은 창작자가 겪는 문제 해결의 과정과 본질적으로 닮아 있다. 학부 시절에 익힌 창작 과정은 화가에서 교육자로, 그리고 행정가로 이어지는 여정의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미술사 연구자에서 대학 총장으로서의 역할까지 확장해 온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미술사 연구자라는 생각보다는 화가에 가깝다고 생각하며, 화가로서 미술사에 관심을 가졌고, 미술교육에도 관심을 가졌다. 이는 교육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 행정도 대학교수로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무엇이라고 시키나 상황을 특정 짓기는 어려운 듯하다. 다만, 살면서 다양한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총장의 직책까지 맡게 된 것 같다. 굳이 이유를 들자면, 성격에 기인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뭔가 계획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데 별로 두려움이 없다.

연구 및 교직생활에서 가장 인상적인 프로젝트

여러 프로젝트가 있었지만, 우리 대학 RISE 사업의 일환으로 2025년에 진행한 <서학 문화예술·교육지구 활성화 사업>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 사업은 전주 서학동 일대의 문화예술 자원과 대학의 교육적 역량을 결합하여 지역 문화예술 교육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시도였다. 단순히 연구 결과물을 발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과 예술가, 학생, 교원이 함께 참여하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을 만든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다. 이 사업의 경험은 총장으로서 대학과 지역을 잇는 플랫폼 역할을 구상하는 데도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한국 회화사와 전통미술 연구를 지속해 온 배경과 오늘날 교육현장에서 갖는 의미

대학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온 후 방황할 시기가 있었는데, 미술사가 최완수 선생님을 뵈고 간송미술관에 출입하기 시작하면서 전통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때 닦치는 대로 조선시대 고화를 모사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고전의 위대함을 새롭게 보게 되었다. 미술사를 공부하게 된 것도, 화가의 시

각으로 고전을 보니 이론가의 시각과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 배운 것이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전통의 중요성을 교육 현장에서 강조하는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전통이 좋은 것'이다라기보다는, 배움의 과정에서 자기 것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베이스가 전통일 때 훨씬 효과적이라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를 아는 것이 미래를 여는 힘이 된다는 믿음은 연구자로서나 교육자로서나 변함없다.

연구와 교육 실천을 연결하는 '융합적 접근'을 강조해왔는데, 이러한 방식이 미래 교원 양성에 가져올 변화

융합적 접근이란 결국 경계를 허무는 일이다. 미술교육과 다른 교과가 연결되고, 학교와 지역이 연결되고, 연구와 실천이 연결될 때 교육은 훨씬 풍부해진다. 미래의 교원은 다양한 맥락을 읽고 아이들의 삶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교원을 기르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자체가 융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주교육대학교에서는 AI·디지털 교육, 지역 사회 연계, 예술문화 교육, 다문화 교육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교육과정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교육대학이 '멀티플랫폼형 교육종합대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나의 비전도 이러한 융합의 정신에서 나온 것이다.



미술교육의 비전과 계획

교육대학교에서 미술교육을 가르친 교수로서 '공교육으로서 미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나라처럼 대부분 인생의 진로 설정이 대학입시에 꽉 막혀 있는 현실에서, 미술 전문가가 되기 위해 미대를 진학하는 학생 이외에는 공교육 과정에서 미술교육은 주변부에 머물 수밖에 없는 면이 있다. 예술을 향유하는 인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모든 아이들에게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그 기쁨을 알게 하는 것은 교육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총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대학 내 예술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려고 한다.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서, 예비 교사들에게 예술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는 것은 우리 미래 교육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모교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다들 자기 생각과 계획이 있으실 텐데, 뭐라고 함부로 메시지를 전하는 게 쉽지 않다. 다만, 경험에 비추어 조심스럽게 후배들에게 한 말씀드리면, 앞으로의 시대는 유연한 사고와 도전 의식이 매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는 미대를 가면서 화가의 꿈을 꾀지만, 살면서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됐다. 학교 다닐 때는 화가가 되는 것 이외에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런데 세상에는 다양한 방식의 삶이 있고, 더불어 살면서 쌓여가는 경험들이 새로운 길을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배웠다. 모든 것이 융합되고 새로운 매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타나는 시점에, 적극적이면서 유연한 자세로 세상을 배우고 적응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바로크의 로마' 출판 정진국(73회화)

미술평론가이자 사진가인 정진국 동문의 신간 '바로크의 로마: 아름다움에 눈 뜨는 도시'가 출간됐다. 이 책은 고대 유적의 도시로만 인식되던 로마를 17세기 바로크 예술의 중심지로 재조명하며, 도시 곳곳에 살아 숨 쉬는 미학적 생명력을 탐사한다. 정동문은 미술관과 성당, 박물관 등 40여 곳을 직접 답사하고 200여 점의 사진을 통해 현장의 생생함을 전달한다. 특히 잔 로렌초 베르니니, 카라바조, 프란체스코 보로미니 등 거장들의 작업을 중심으로 가톨릭 성



당과 예술의 결합이 도시에 불어넣은 변화를 추적한다. 그는 바로크 예술이 종교적 틀을 넘어 인간의 감각과 영혼을 일깨운다고 강조하며, 로마를 '잃어버린 낙원으로 향하는 길'로 해석한다. 한편 정동문은 모교 회화과 졸업 후 프랑스 파리 8대학 조형예술학부 및 파리 1대학 미학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이후 영남대학교에서 20세기 민중생활사연구단 연구원, 대학 강사, 사진 평론가 및 작가로 활동 중이다.

자이푸르 국제아트서밋 참여 서길현(91조소)

서길현 동문은 최근 인도 라자스탄 주 자이푸르에서 열린 '자이푸르 국제아트서밋(International Art Summit)'에 초청작가로 참가해 친환경 조각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서동문은 행사기간 동안 진행된 아트캠프에서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바즈라(진주조), 조와르(수수), 밀 등 다양한 곡물과 갈대, 면실 등 자연 재료를 활용해 물 위에 띄우는 친환경 조각 작품을 제작했다. 작품은 아라비아 고무와 전분 풀 등 자연 접착제를 사용해 만든 생분해성 오브제로, 물 위에 설치된 조형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해체되거나 물고기와 새들의 먹이



가 되어 자연의 순환 속으로 돌아가도록 구상되었다. 자연 재료와 환경적 감수성을 결합한 이번 작업은 새로운 조형적 실험으로 현지 예술가와 관람객들의 관심과 호평을 받았으며, 서동문은 이 작업을 주제로 푸니마대학에서 강의와 발표도 함께 진행했다. 한편 서동문은 모교 조소과를 졸업하고 파리 1대학 팜테옹 소르본느 조형예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저서로는 '이미지의 집', '큐브 루시다', '보이지 않는 눈길', '핑크 통신'이 있다. 현재 서울조각회 이사, '미술과 비평' 평론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전주교육대학교 제9대 총장 취임 장지성(85동양)

장지성 동문이 지난 3월 30일 전주교육대학교 제9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장동문은 '작지만 강한 대학, 함께 만드는 미래교육 혁신 플랫폼'을 대학의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며, 전주교육대학교가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교원양성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미래교육 혁신플랫폼 기반의 교원양성대학 새로운 모델 제시, 교육혁신을 주도할 미래형 교육인재 양성, 교육 및 연구 지원 강화를 통한 대학 역량 제고, 구성원 모두가 삶의 여



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대학 문화 조성 등을 주요 과제로 밝혔다. 장동문은 "구성원과 함께 전주교육대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혁신 플랫폼 대학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총장 취임식은 지난 4월 8일 전주교육대학교 교사교육센터 마음연구홀에서 개최됐다. 한편 장동문은 모교 동양화과를 졸업하였으며, 교육과 예술을 아우르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학 발전을 이끌 책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야기 성경에 삽화 정혜주(83회화)

정혜주 동문이 삽화를 맡은 '바나바 할아버지의 이야기 성경'이 지난해 5월 31일 출간됐다. 어린이 사역 50년을 맞이한 양승헌 목사가 펴낸 이 책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들려주기 위해 기획됐다. 정동문은 이 책에 사실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성경을 다음 세대의 눈높이에 맞추어 전달하고 각인시키기 위한 일러스트를 그려냈다. 한편 모태 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정동문은 대학교 1학년 때 갖게 된 신앙의 확신



으로 사역에 헌신하게 되어,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이 없는 민족에게 성경을 번역하고 가르치는 일을 맡고 있다. 정동문은 모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개인전 1회와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했으며, 소수 민족 사람들의 삶을 작품으로 담아내 기도 했다. 일러스트를 맡은 책으로는 '바나바 할아버지의 이야기 성경(유아용, 어린이용, 청소년·청년용)'이 있다.



바나바 할아버지의
이야기 성경

양승헌 글 | 정혜주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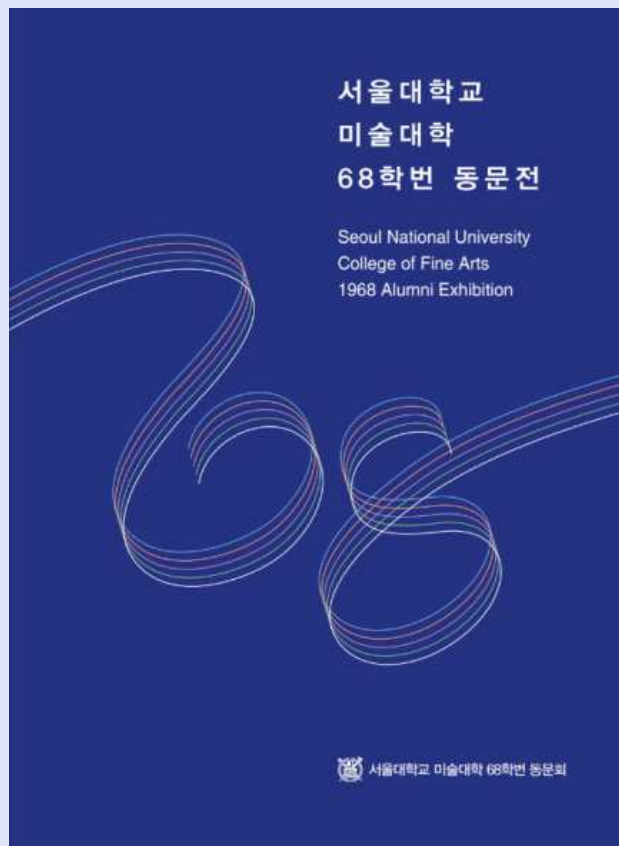
지금 여기 우리 68전

‘80을 앞두고 다시 만난 청춘’

서울대미대 68학번, 반세기 우정 담은 전시회 열어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68학번 동문들이 졸업 50여 년 만에 다시 한자리에 모여 특별한 전시회를 열었다. 이번 전시는 지난 5월 7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종로구 백악미술관에서 김성연(68조소), 이윤행(68회화), 이은산(68회화), 황태갑(68조소) 동문의 추진으로 열렸으며, 현용순(68응미) 동문이 도록 디자인을 맡아 학창시절의 얼굴과 현재의 모습을 함께 담았다. 모교가 연건동 캠퍼스에 있던 시절 함께 학창 생활을 보냈던 동문들이 작품전시와 추억을 나누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오랜 세월 각자의 삶이 다시 예술로 연결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7일 열린 오프닝행사에서 사회를 맡은 박미순(68응미) 동문은 “1968년에 입학해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친구들이 어느덧 80을 앞두고 전시회를 열게 됐다”며 “오랫동안 못 만난

친구들이 다시 만나 회포를 푸는 자리”라고 전시의 의미를 소개했다. 이어 학창시절 학생회장이었던 신경호(68회화) 동문은 인사말을 통해 “비가 오는 곳은 날씨에도 찾아와 준 분들께 감사하다”며 “졸업한 지 벌써 54년이 지났고, 대학시절 이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뒤 다시 만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단순한 제안으로 시작했지만, 동문들의 열정과 응원 덕분에 결국 이렇게 전시회를 열게 됐다. 그동안 작업했던 작품과 소품들을 모아놓고 보니 열 번을 해도 충분할 만큼 풍성한 전시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전시는 동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업으로 준비됐다. 기획에 참여한 이은산 동문은 “전시를 하자고 제안한 뒤 서로 부딪히고 싸우기도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더 가까워졌다”며 “68학번은 아직 건재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행사에서는 전시에 참여한 동문들의 다양한 이야기도 이어졌다. 한 참가동문은 “처음에는 작품을 낼 자신이 없었지만 친구들의 권유로 참여하게 됐다”며 “대학시절 사진과 현재 모습을 함께 구성해보니 50년 세월이 오히려 더 큰 친밀감을 만들어줬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동문은 “우리가 모두 같은 나이가 되어 다시 모였다는 사실 자체가 감동”이라며 “준비 과정도 즐거웠고,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시장에서는 서울대미대가 연건동에서 공릉동, 다시 관악캠퍼스로 이전하던 당시의 기억도 자연스럽게 소환됐다. 황태갑 동문은 “68학번은 연건동 시절을 보낸 마지막 세대였다”며 “공릉동과 관악캠퍼스를 모두 경험한 세대이기도 하다”고 회상했다.



이어 당시 학생회 활동과 대학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어졌다. 신경호 동문은 “당시 서울대미대 학생회는 특정 학교 출신 중심 문화가 강했지만, 우리는 단일 후보 체제로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고자 했다”며 “서구식 카니발 문화 대신 풍물놀이와 씨름대회 같은 우리식 축제를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1960~70년대 어려웠던 시절 대학 분위기에 대한 회고도 이어졌다. 민정기(68회화) 동문은 “당시는 미술대학 역시 자료나 정보가 부족한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오히려 그런 시대 속에서 연극과 미술, 토론을 통해 자유를 찾으려 했다”며 특히 미대 연극 활동에 대한 기억을 인상깊게 소개했다. 그는 “연극은 당시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표현과 소통의 공간이었다”며 “미술대 학생들이 문리대 시청각실에서 공연을 하면 다른 단과대 학생들도 몰려와 함께 호흡했고,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 운동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정선(68조소) 동문이 기타반주로 노래를 불렀다. 작품과 노래가 어우러져 전시장을 찾은 동문들은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50여년의 세월동안 작고한 동문들의 작품도 함께 했고, 미국과 프랑스에서 작품활동을 하는 동문들도 작품을 보내왔다. 이번 전시는 단순한 동문 모임을 넘어, 한국 현대미술과 대학 문화의 한 시대를 살아낸 예술가들의 집단적 기억을 공유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며 학창시절의 추억을 나누었고, 행사 말미에는 단체 사진 촬영으로 오프닝을 마무리했다.



김혜숙(68응미) 동문은 “걸어 온 길은 사라지지 않는다. 보이지 않을 뿐, 흔적이 되어 다시 나를 길 위에 세운다”고 했다. 박미순 동문은 “77년이 길다고 해도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길고도 긴 시간을 지내다 이제야 삶에 대해서 조금 알 것 같기도 하다. 쉽게 보였다. 그런데 하나도 쉽지 않았다. 다 지나갔다. 다 지나간다”고 했다.

한 참가동문은 “이제 우리 중 몇몇은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이렇게 다시 만나 웃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자주 만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칼로 새겨 기억하겠습니다 이성도(74조소)

이성도 동문의 개인전 '칼로 새겨 기억하겠습니다-독립운동가의 초상'이 '107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맞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박물관에서 열렸다. 지난 4월 14일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의병 활동, 여성 독립운동, 무장투쟁, 자강운동, 임시정부 등 독립운동의 다양한 흐름을 따라 총 137점이 선보인다. 이동문은 점토를 붙이고 새기는 소조 기법과 이를 석고로 떠내는 과정을 통해 제작된 부조 작품으로 독립운동가의 얼굴을 표현했다. 그의 손끝을 거친 독립운동가의 얼굴은 그들의 삶과 정신을 시각적



으로 드러낸다. 송호정 교육박물관장은 "독립운동을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오늘의 삶과 연결된 가치로 되새기는 교육적 전시로 관람객에게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조소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한국교원대학교에서 교육과 창작을 병행해 온 조각가다. 불교 수행자와 유학자의 초상작업을 통해 인간의 내면과 정신을 탐구해 온 그는 이후 항일 독립운동가의 얼굴에 주목하며 역사적 인물을 조형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서용선의 단종그림 서용선(75회화)

서용선 동문의 개인전 '서용선의 단종그림'이 지난 4월 22일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 아트스페이스3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서동문이 40여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천착해 온 단종 연작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단종애사를 회화적으로 탐구해 온 그의 역사화 세계를 소개하는 자리다. 서동문은 지난 40여 년간 약 150여 점의 유화와 350여 점의 드로잉을 통해 조선시대 단종과 관련된 작업을 꾸준히 이어왔다. 특히 단종의 유배지였던 영월을 중심으로, 역사적 사건과



장소에 내재한 비극적 정서를 회화적으로 탐구해왔다. 그의 역사화는 서사성과 표현성을 기반으로 한다. 그는 단종과 관련된 사건의 맥락과 그 안에 내재한 비극의 정서를 읽어내도록 유도한다. 주제와 형식의 '서술'과 '재현', 그리고 '압축'과 '표현'을 통해 역사적 실체에 접근하고자 하는 그의 인문학적 시도는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 한편 서동문은 모교 회화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뒤 다수의 개인전 및 단체전에 참여했다.

웃기고 눈물겨운 식탁으로부터 허진(81회화)

허진 동문의 초대전 '웃기고 눈물겨운 식탁으로부터'가 때아트갤러리에서 지난 5월 1일부터 14일까지 열렸다. 허동문은 지난 30여 년 동안 공동체의 삶과 그 바깥으로의 탈주라는 관심 주제를 형상화 해왔다. 그동안 전통 재료에 여러 화판 조각을 콜라주하여 한국 근대사를 표현했던 그는 이후 인간 삶의 조건을 다종 이미지의 병치로 그려내는 행보를 이어왔다. 최근 들어서는 자연과 문명 사이를 가로지르며 유영하는 동물의 형상을 통해 새로운 생의 방식을 상상케 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허 동문은 직접 찍은 일상 사진들을 끌어와



회화 작품들 사이에 위치시킨다. 각 사진에는 삼인칭 '그'를 주인공으로 하는 텍스트가 붙어 있는데 이는 이 작업이 단순한 고백 서사가 아니라 사실과 픽션을 의도적으로 혼동케 하는 장치임을 보여준다. '웃기고 눈물겨운 식탁'은 허 동문이 실제로 지나쳐온 생활 속 지점인 동시에, 작가를 허구의 이야기 속으로 빨아들여 전체 전시의 맥락 속에 재배치시키는 도구로 작동한다. 한편 허 동문은 모교 회화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현재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곳 이선원(75회화)

이선원 동문의 개인전 '그곳'이 지난 5월 13일부터 오는 6월 6일까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갤러리 소연에서 열린다. 그의 작업에서 나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작품의 재료이자 동시에 주제로 작동한다. 그는 초기에 닥나무 줄기를 삶고 갈아 직접 종이를 만들기도 하고, 닥 펄프에 여러 천연섬유를 혼합하여 회화적 이미지를 만들거나, 잔 나뭇가지 위에 한지를 여러 겹 쌓아 올려 한옥 공간을 형상화하기도 했다. 이번 전시에서 이동문은 시간과 기억이 머문 물의 풍경인 '그곳'을 주제로 삼아 개인의 기억, 피안, 이상향의 풍경을 그렸다. 그



는 전시작품 '그곳'을 그리면서 2003년 개인전 '바리공주, 바리데기'에 전시했던 여성의 노동을 상징하는 수세미를 한지로 감싸고 연결한 작품 '바리공주-생명수'를 떠올리며, 물의 풍경 '그곳'과 생명의 원천을 담은 '바리공주-생명수'의 작품을 연결 짓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미국 프랫 인스티튜트 대학원 판화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미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는 한지 위에 나무와 숲과 물을 그리며 자연의 생명력을 담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선원 초대전
Sunwon Lee

그곳 there

2026.5.13 WED - 6.6 SAT
11:00-19:00 (일, 월 휴관)

갤러리 소연

서울 종로구 경희궁길 36 경희당 3층 302호
M 010-7182-7703

백년과 1초 임현락(83동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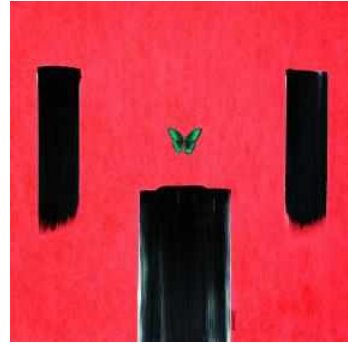
임현락 동문의 개인전 '백년과 1초'가 지난 4월 9일부터 5월 3일까지 대구광역시 무영당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에는 임동문의 '나무들 서다' 시리즈에서부터 최근작 '1초 수목'까지 20년간의 대표작과 아카이브가 소개됐다. 임동문은 "작년 말 1930년대 대구에서 세워진 최초의 백화점인 무영당에 들렀다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공간에 빠져들어 '백 년이 된 건축과 일 초 수목의 만남'이라는 전시를 구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동문의 예술과 사유의



근간은 생명과 치유로 일 획으로 그은 필획들을 공간에 세워 수묵화의 평면성을 3차원 공간으로 확장했다. 여기에서 필획들은 숲이 되고, 관객의 움직임과 공기의 흐름에 미세하게 흔들리며 살아있는 나무처럼 교감하는 장이 됐다. 한편 임동문은 모교 동양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19차례의 개인전과 2015년 베니스비엔날레 병행전 등 다수의 국내외 초대전을 열었으며, 1993년 중앙미술대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현재는 경북대학교 미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초대개인전 고완석(84회화)

고완석 동문의 초대개인전이 지난 4월 29일부터 오는 6월 21일까지 청주시 상당구 네오아트센터에서 열린다. 그는 이번 전시에서 'LOOK'이라는 주제를 작품의 화두로 잡았다. 고동문은 이번 전시에서 스테인리스 스틸을 캔버스처럼 이용한 작품과 캔버스 천에 아크릴을 사용한 작품을 선보였다. '바라보기'를 통해 감상자에게 참다운 자기의 존재를 찾아가고자 하는 사유적 공간과 시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바쁘게 흘러가는 현대사회 속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대로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전한다. 한편 고동문은 모교 동양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단국대학교 미술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개인전 45회 및 단체전 350여회에 참가해왔다. MBC 미술대전 장려상 및 교육부 장관상 등을 수상하였고 모교 강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G-ART 공동대표 및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교수를 역임하며 창작활동을 해오고 있다.

인연의 다리 조규철(84서양/1966-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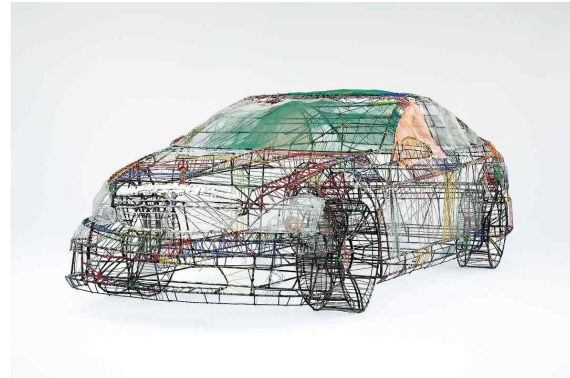
2019년 작고한 조규철 동문을 기리는 추모전 '인연의 다리'가 지난 4월 1일부터 6일까지 서울 인사동 G&J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평생을 예술과 함께해 온 조동문의 삶과 작품세계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그와 깊은 인연을 맺어온 선후배 동문 세 명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기획됐다. 조동문 외에 윤태영(84서양), 김진남, 조희현 작가가 참여하여 총 27점의 작품이 선보여졌다. 전시는 조동문의 유작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생전에 교류했던 동문 작가들이 함께 참여해 더욱 뜻깊은 헌정의 장을 이루었다. 전시 제목인 '인



연의 다리'는 예술을 매개로 사람과 사람, 세대와 기억이 연결되는 관계의 가치를 되새기며, 공동체적 기억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했다. 한편 조동문은 모교 서양화과와 프랑스 파리8대학 석사과정을 졸업 후 15년간의 파리생활을 하고 2010년 광주로 돌아와 작업을 이어 갔다. 그는 시간과 기억의 층위를 탐구하며, 축적된 감정과 존재의 흔적을 화면 위에 담아내는 데 집중했었다.

What Car? Hand Made in Korea 홍광현(86산디)

지난 4월 11일 개막한 '2026 양재 아트살롱'에 홍광현 동문의 대표작 'What Car?'가 전시됐다. 본 작품은 2009년 독일 하노버에서 전시되어 주목받았던 작품으로, 독일 자동차 공학의 정수를 상징하는 메르세데스-벤츠 S-Class를 실제 크기 그대로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홍동문은 재활용 폐전선과 와이어, 망 등을 활용해 수작업으로 이 거대한 형상을 빚어냈다. 작품 'What Car?'는 첨단 기술의 결정체인 자동차를 버려진 소재로 재해석함으로써 최근 사회적 화두인 환경과 재활용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다. 동시에 '예술의 가치'와 '상품



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대중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던진다. 한편 홍동문은 모교 산업미술과를 졸업한 후 미국 ACCD에서 Transportation Design을 전공했다. 현대자동차, 삼성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자동차 디자이너를 역임했으며 현 플랜리빙 대표이다. 또한 대한민국 미술대전 서예부분에서 다수 입상하였다.

푸른 숲의 시간 김상경(87서양)

김상경 동문의 개인전 '푸른 숲의 시간'이 지난 4월 28일부터 오는 5월 16일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갤러리두에서 열렸다. 김동문은 직접 방문한 여행지의 자연을 화폭에 담는 작업을 해왔다. 화면 속 대상은 제주의 하귤 나무와 천남성 열매, 하와이의 은검초, 브레드트리, 오히아레후아처럼 지역을 상징하는 구체적인 식물들이다. 작품들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몽환적이면서 뚜렷한 색감의 난색과 한색의 강한 대비이다. 선명한 색은 시간과 공간이 뒤틀린 듯한, 혹은 모든 시공간이 응축된 세계를 연상케 한다. 강한 색 대비는 화



면에 깊이와 확장성을 부여한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서양화과 및 동대학원 판화전공 석사과정을 졸업한 뒤 이번 '푸른 숲의 시간' 전시를 포함해 총 26회의 개인전을 가졌다. 또한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2017/2021/2024), 천안지원, 제주지방검찰청, 의사협회본부, 제주농협본부, 푸른솔 GC포천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Hyper Scape 임상빈(95서양)

임상빈 동문의 개인전 'Hyper Scape'가 지난 5월 7일부터 오는 7월 4일까지 메타갤러리 라루나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VR 전시관이 함께 운영된다. 그는 수천 장의 이미지를 결합해 하나의 장면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업하며, 'Hyper Scape'는 이런 방식을 통해 현실보다 더 강하게 지각되는 '하이퍼리얼리티'의 공간을 가리킨다. 그의 작업에서 도시는 인간의 욕망과 역사가 축적된 공간으로 나타난다. 천안문, 근정전, 첨성대와 같은 상징적 건축물은 과장된 스케일로 확장되며 기념비적 이미지로 재구성된다. 또한 덕수궁 뒤로 밀집한



고층 빌딩의 이미지는 역사와 자본, 권력의 층위가 동시에 존재하는 도시의 구조를 드러낸다. 자연을 다룬 작업에서는 동일한 장소를 반복적으로 촬영한 이미지들이 하나의 화면에 결합되며 시간의 흐름이 압축된다. 파도, 숲, 군중과 같은 요소들은 서로 다른 시간대의 이미지가 중첩된 형태로 나타나며, 단일 장면 안에서 다층적인 시간 경험을 구성한다. 한편 임상빈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예일대학교에서 회화를 전공했다. 컬럼비아대학교에서 미술교육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서양화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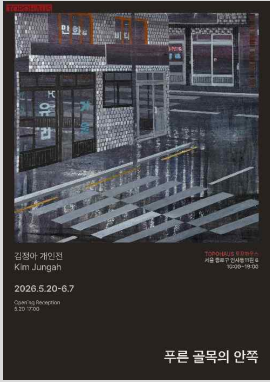
5월의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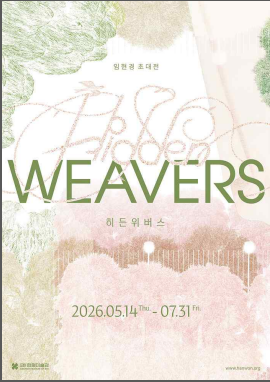
장발(루도비코)전
장발(교원)
5.27-9.11
일송기념도서관



산보다 큰 것을 아무리 태워도
문조현(13동양)
5.22-6.17
챔버



푸른 골목의 안쪽
김정아(90서양)
5.20-6.7
토포하우스



히든위버스
임현경(01동양)
5.14-7.31
한원미술관



그곳
이선원(75회화)
5.13-6.6
갤러리 소연



색유만개
권순형(49응미)
5.12-8.2
서울공예박물관



가족의 품
박세현(82회화)
5.9-29
갤러리 뽀띠팔레



흔들흔들
김륜아(15서양)
5.8-6.5
더 소소



Pending Point
박현윤(서양21) 김민지(서양21)
5.8-5.30
YK presents



Hyper Scape
임상빈(95서양)
5.7-7.4
메타갤러리 라루나



고완석 초대개인전
고완석(84동양)
4.29-6.10
네오아트센터



영원한 경이
조유정(13서양)
4.17-5.30
OCI미술관



수도꼭지 연대기
이은경(13동양)
4.17-5.30
OCI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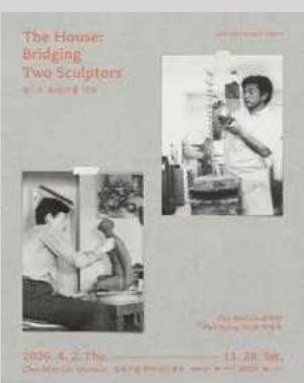
칼로 새겨 기억하겠습니다
이성도(74조소)
4.14-8.1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박물관



완당과 우성 I
김종영(교원)
4.10-6.21
김종영미술관



빛과 결, 自生之美
김덕용(81동양)
4.10-6.7
성남큐브미술관



집:두 조각가를 잇다
최만린(54조소)
4.2-11.28
최만린미술관



최종태전시관 개관기념전
최종태(54조소)
4.1-7.12
최종태미술관



서화무진
이종상(59회화) 외
3.17-6.14
대구미술관



풍경 속으로
김남표(91서양)
2.20-5.25
한주아트스페이스